

요양시설과 재가의 영양보호사 직무비교

황은희* · 정덕유** · 김미정*** · 김건희**** · 신수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이며, 2030년에는 24.3%로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Korea, 2011).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노인들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가족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로써 노인 질환치료, 요양과 보호의 책임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었다(Han,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인 영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인력이며, 업무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뇌졸중·치매·파킨슨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에게 계획적인 전문적 서

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영양보호사는 장기요양대상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Um, 2011). 노인복지법에 따라 영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종류별로 영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방문요양 영양보호사는 신체지원활동과 함께 취사, 청소, 세탁,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과 비교해서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에서는 침구나 린넨교환, 물품관리 등의 업무가 부과된다(Park, D. J., 2010). 특히, 방문요양 영양보호사는 노인 가정에 단독으로 파견되어 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며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간병인과 비교해 볼 때 노인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 뿐 아니라 가정에서 수행하는 일상업무 보조 역할이 추가되어 간병인 업무보다 다양하며 광범위하다(Kim, 2009; Park, Y.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투고일: 2012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2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1일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sssj1119@sch.ac.kr)

H., 2010).

그러나,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그들의 직무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만족을 하지 못하여 이직을 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Yeom, 2009; Lee, C. J., 2010; Lim, 2011:). 이러한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문제, 요양인력 간 업무 영역의 불분명함 등이 제기될 수 있다(Lee, C. J., 2010; Park, D. J., 2010;).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Yoon, Cho와 Lee(2011)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의 정도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재가나 요양병원 근무자가 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보수, 승진, 업무 스트레스, 고용형태 등이 제시되었다(Lim, 2011; Kim et al., 2009). 즉,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은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직무가 합의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업무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요양보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Cho, 2008). 또한 시설 유형에 따른 업무범위의 차이 역시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직무 만족이나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요양시설과 재가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Park, D. J., 2010)가 소수 보고되었지만, 구체적인 빈도나 업무의 난이도를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시설 유형별 직무 범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보호사를 국가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Byun, Choi, & Suk, 2010)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수교육 요구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실질적 업무 현황 파악 및 요양시설과 재가의 업무 차이에 대

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 수준에 맞는 공급 인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Ryu, 2005), 제도 시행 5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실무현장의 시설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과 재가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요양시설과 재가의 요양보호사 직무의 빈도 차이를 파악한다.
- 2) 요양시설과 재가의 요양보호사 직무의 난이도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과 재가의 요양보호사의 직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요양보호사 직무분석 연구(Shin et al., 2012)에 대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전국의 25개 요양시설과 19개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각 284명과 134명으로 총 4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양보호사의 임무와 일, 일의 요소는 본 연구자가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법에 의해 도출한 요양보호사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Shin et al., 2012). 그 결과

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6개의 임무, 즉 신체요양보호, 정서적 요양보호,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특수요양보호, 기록 및 보고, 자기개발로 나누어지며, 각 임무는 다시 여러 가지 일로 세분되어 총 18개의 일, 64개의 일 요소로 세분된다.

일의 빈도는 '하지않는다' 0점, '주1회 이하' 1점, '주 2-3회' 2점, '하루 한번' 3점, '하루 2-3회' 4점, '하루 4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3점 이상인 경우 매일 한번 이상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를 의미한다. 난이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할 경우 중앙으로 수렴하는 편중을 막기 위해 '매우 쉽다' 1점, '쉬운 편이다' 2점, '어려운 편이다' 3점, '매우 어렵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3점 이상인 경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임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권역별로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와 등록된 요양보호사 수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수를 설정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기관을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목적과 대상 및 방법에 대해 해당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기관에 한해, 설문지침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은 지역별 담당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한 후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를 허락하였으나 방문이 어려운 기관에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무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시설과 재가의 차이 분석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요양시설과 재가 모두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요양시설과 재가 모두 40대가 각각 36.6%, 40.0%, 50대가 각각 42.2%, 40.8%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55.2%, 63.8%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13-24개월이 36.3%, 41.6%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18

Variables	LTC [†] n(%)	CH [‡] n(%)	χ^2/p
Gender	Male	20(7.1)	1.751/ .186
	Female	261(92.9)	
Age(years)	20-29	12(4.5)	7.139/ .129
	30-29	25(9.3)	
	40-49	98(36.5)	
	50-59	113(42.2)	
	≥60	20(7.5)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14(5.4)	7.064/ .216
	Middle	45(17.4)	
	High	143(55.2)	
	College	38(14.7)	
	University or more	19(7.3)	
Career(months)	<6	30(11.2)	1.210/ .751
	6-12	50(18.7)	
	13-24	97(36.3)	
	≥25	90(33.7)	

[†] LTC, Long term care facilities; [‡] CH, Client's home

2. 요양시설과 재가의 영양보호사 일요소의 빈도 차이

요양시설과 재가의 영양보호사의 직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생활 지원하기'와 '일상업무 지원하기'의 빈도가 재가가 더 많았고, 다른 일은 요양시설에서의 빈도가 높았다(Table 2).

일요소의 빈도 중 '식품 및 식기 위생관리하기'를 제외한 모든 일요소가 시설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식자재 구입 지원하기', '외출동행하기', '일상업무 대행하기'는 재가에서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요양시설과 재가의 영양보호사 일요소의 난이도 차이

시설 종류에 따른 영양보호사 일의 난이도는 신체요양보호 업무 중 '개인위생 돕기',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운동 및 활동 돕기', '안전관리하기'가, 정서적 요양보호 업무 중 '의사소통 돕기'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 중 '식생활 지원하기', '환경 관리하기', '일상업무 지원하기'가, 특수요양 보호 업무 중 '응급상황 예

방, 조기발견, 신속보고하기', '치매대상자 돕기'가, 기록 및 보고 업무 중 '기록하기', '보고하기'가, 자기개발 업무 중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자기관리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영양보호사가 난이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Table 4).

시설의 영양보호사가 재가의 영양보호사보다 난이도를 높게 보고한 일요소는 '세면돕기', '구강위생돕기',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돕기', '손발청결돕기', '화장실 사용돕기', '체위변경하기', '휠체어 이동돕기', '보행보조하기', '복약 돕기', '관절범위운동 보조하기', '산책돕기', '욕창예방하기', '낙상예방하기', '억제대 관리하기', '의사소통돕기', '정서적 지지하기', '식자재구입 지원하기', '세탁하기', '청소하기', '물품관리하기', '일상업무 대행하기', '상태관찰하기', '간단한 상처 소독하기', '객담배출돕기', '질식 시 대처하기', '화상 시 대처하기', '경련 시 대처하기', '출혈 시 대처하기', '저혈당 시 대처하기', '임종상황 대처하기', '기타 응급상황 대처하기', '치매대상자 상태변화 관찰하기', '치매대상자 문제행동 대처하기', '치매대상자 인지활동 돕기', '업무일지 작성하기', '환자관리대장 작성하기', '업무 인수인계하기',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업무관련 교육 참여하기', '최신정보 수집하기', '관련종사자와 유대관계

Table 2. Differences of Frequency in Tasks between LTC and CH

Duty	Task	LTC [†] M±SD	CH [‡] M±SD	p
Physical care	Personal hygiene	3.22±1.03	1.78±0.75	<.000
	Elimination care	4.21±0.85	1.13±0.97	<.000
	Position change and movement	4.55±0.81	1.59±1.23	<.000
	Feeding assistance	3.90±0.97	1.29±1.16	<.000
	Exercise and activity assistance	1.95±1.36	0.97±0.80	<.000
Emotional care	Safety care	3.97±1.08	1.18±1.14	<.000
	Leisure activity assistance	3.96±1.03	2.27±1.29	<.000
Housekeeping and daily living assistance	Communication assistance	2.55±1.60	1.58±1.31	<.000
	Dietary assistance	1.68±1.40	2.02±1.15	.020
	Environment management	3.31±1.12	1.99±1.10	<.000
Special care assistance	Daily work assistance	0.91±1.27	1.31±0.88	.001
	Disease management assistance	2.69±1.24	1.16±0.96	<.000
	Emergency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speedy reporting	1.23±1.22	0.43±0.59	<.000
Documenting and reporting	Dementia patient care	4.20±1.27	1.39±1.54	<.000
	Documenting	2.64±1.60	1.72±1.26	<.000
Self-development	Reporting	2.77±1.43	0.95±1.01	<.000
	Promoting competency	1.47±0.99	0.94±0.53	<.000
	Self management	1.95±1.65	1.16±1.10	<.000

[†] LTC, Long term care facilities; [‡] CH, Client's home

Table 3. Differences of Frequency in Task Elements between LTC and CH

Duty	Task	Task element	LTC [†] M±SD	CH [‡] M±SD	p
Physical care	Personal hygiene	Washing face assistance	3.7±1.36	2.0±1.28	<.000
		Providing oral care	4.2±0.76	2.2±1.34	<.000
		Dressing assistance	3.1±1.54	2.1±1.11	<.000
		Shampooing hair	2.4±1.50	1.7±0.72	<.000
		Bathing assistance	2.2±1.47	1.6±0.83	<.000
		Foot and nail care	2.8±1.70	1.7±1.10	<.000
		Perineal care assistance	4.0±1.37	1.6±1.31	<.000
	Elimination care	Toileting assistance	4.6±1.02	2.3±1.62	<.000
		Offering bedpan	4.6±1.04	1.3±1.58	<.000
		Offering bedside commode	4.1±1.49	1.5±1.65	<.000
		Applying a diaper	4.9±0.66	1.5±1.77	<.000
		Assistance to keep urinary catheter	2.9±2.14	0.4±1.01	<.000
	Position change and movement	Changing position	4.8±0.80	1.9±1.86	<.000
		Ambulation assistance: wheelchair	4.5±0.99	1.2±1.45	<.000
		Ambulation assistance	4.3±1.28	1.9±1.62	<.000
	Feeding assistance	Oral feeding assistance	4.4±0.81	1.8±1.63	<.000
		Tube feeding assistance	3.1±2.00	0.8±1.39	<.000
	Exercise and activity assistance	Taking medicine assistance	4.2±1.04	1.8±1.60	<.000
		ROM exercise assistance	2.4±1.88	1.9±1.48	.007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ce	1.8±1.67	0.6±1.10	<.000
Physical therapy assistance		1.5±1.64	1.0±1.31	.001	
Walking assistance		2.4±1.72	1.5±1.20	<.000	
Safety care	Preventing a bed sore	4.6±1.13	1.7±1.69	<.000	
	Preventing a falling	4.6±1.02	1.8±1.64	<.000	
	Managing a restraint	2.7±2.18	0.4±0.88	<.000	
Emotional care	Leisure activity assistance	Conversational partner	4.4±0.99	3.0±1.42	<.000
		Playing a game	3.5±1.49	1.6±1.58	<.000
	Communication assistance	Communication assistance	2.8±1.75	1.7±1.53	<.000
		Emotional support	2.3±1.95	1.6±1.48	.001

† LTC, Long term care facilities; ‡ CH, Client's home

형성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건강 및 안전관리하기'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과 재가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빈도와 난이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50-59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요양보호사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Kim & Yoon, 2011; Yoon et al.,

2011; Lee, S. H., 20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돌봄의 주책임자는 여성이라는 인식과 학력이나 연령, 경력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다른 의료관련 직종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정기관에서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자격요건으로 건강검진, 신원조회, 신용도 등의 신상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2009). 반면, 국내에서는 요

Table 4. Differences of Difficulty in Tasks between LTC and CH

Duty	Task	Task element	LTC [†] M±SD	CH [‡] M±SD	p
Housekeeping and daily living assistance	Dietary assistance	Supporting buying a food stuff	0.3±1.06	1.4±1.32	<.000
		Preparing diet	3.1±2.03	2.4±1.42	<.000
		Washing food and tableware	2.1±2.18	2.4±1.44	.077
	Environment management	Bunk management	4.2±1.05	2.3±1.40	<.000
		Washing clothes	2.7±1.80	2.1±1.31	<.000
		Cleaning	3.5±1.46	2.3±1.29	<.000
		Managing supplies	3.3±1.51	2.1±1.28	<.000
		Fostering safe environment	2.8±1.86	1.3±1.40	<.000
	Daily work assistance	Out accompanying(hospital)	0.7±1.23	1.2±0.91	<.000
		Acting for client's daily operation	1.2±1.72	1.5±1.12	.028
Special care assistance	Disease management assistance	Keep a client under observation	4.3±1.11	2.4±1.37	<.000
		Disinfecting a simple wound	2.2±2.00	1.4±1.36	<.000
		Expectorating assistance	2.6±2.11	0.8±1.42	<.000
		Applying topical medications	3.1±1.75	1.2±1.30	<.000
		Checking blood sugar	1.4±1.65	0.6±1.15	<.000
	Emergency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speedy reporting	Coping with choking	1.0±1.40	0.3±0.75	<.000
		Coping with burn	0.9±1.34	0.3±0.75	<.000
		Coping with seizure	1.0±1.39	0.3±0.73	<.000
		Coping with bleeding	1.0±1.37	0.2±0.50	<.000
		Coping with falling and fracture	2.2±1.96	1.2±1.42	<.000
		Coping with hypoglycemia	1.6±1.69	0.3±0.76	<.000
		Coping with dying	1.0±1.40	0.4±0.79	<.000
		Coping with other emergency	1.6±1.74	0.9±1.23	<.000
	Dementia patient care	Observing any change of dementia patient	4.2±1.38	1.5±1.55	<.000
		Coping on the behavior problem of dementia patient	4.2±1.29	1.4±1.61	<.000
		Cognitive activity assistance	4.2±1.38	1.3±1.56	<.000
	Documenting and reporting	Documenting	Creating a journal on the job	3.1±1.68	2.1±1.29
Documenting clients management report			2.2±1.92	1.4±1.49	<.000
Reporting		Reporting transition	2.7±1.57	0.7±1.14	<.000
		Reporting to manager	2.9±1.65	1.3±1.04	<.000
Self-development	Promoting competency	Work-related training participation	1.3±0.98	1.0±0.54	<.000
		Collecting current information	1.2±1.06	0.9±0.70	.002
		Bond formation with other workers	2.0±1.62	1.1±0.84	<.000
	Self-management	Managing stress	2.1±1.73	1.3±1.01	<.000
		Managing health and safety	1.9±1.74	1.1±1.15	<.000

† LTC, Long term care facilities; ‡ CH, Client's home

양서비스에 대한 업무 표준이나 직무규정이 없는 상태로 사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학력과 나이제한이 없으며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증할 수 있

는 통제기관 없이 자격증이 주어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면서 2010년 국가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향후 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시설 종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일의 빈

Table 5. Differences of Difficulty in Task Elements between LTC and CH

Duty	Task	Task element	LTC [†] M±SD	CH [‡] M±SD	p
Physical care	Personal hygiene	Washing face assistance	2.1±0.65	2.0±0.62	.016
		Providing oral care	2.4±0.71	2.2±0.71	.002
		Dressing assistance	2.5±0.67	2.2±0.77	<.000
		Shampooing hair	2.6±0.68	2.3±0.79	.001
		Bathing assistance	2.9±0.75	2.6±0.78	.001
		Foot and nail care	2.3±0.67	2.1±0.69	.004
	Elimination care	Perineal care assistance	2.5±0.70	2.5±0.82	.818
		Toileting assistance	2.6±0.73	2.3±0.68	.001
		Offering bedpan	2.7±0.70	2.6±0.68	.364
		Offering bedside commode	2.6±0.72	2.4±0.73	.051
		Applying a diaper	2.4±0.66	2.4±0.74	.520
	Position change and movement	Assistance to keep urinary catheter	2.4±0.72	2.6±0.72	.221
		Changing position	2.7±0.71	2.4±0.74	.001
		Ambulation assistance: wheelchair	2.7±0.71	2.4±0.74	<.000
	Feeding assistance	Ambulation assistance	2.6±0.66	2.4±0.70	.014
		Oral feeding assistance	2.4±0.67	2.2±0.67	.086
		Tube feeding assistance	2.3±0.60	2.2±0.70	.341
	Exercise and activity assistance	Taking medicine assistance	2.4±0.67	2.0±0.76	<.000
		ROM exercise assistance	2.7±0.71	2.4±0.69	<.000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ce	2.7±0.70	2.4±0.79	.064
		Physical therapy assistance	2.6±0.66	2.5±0.80	.455
Safety care	Walking assistance	2.4±0.70	2.2±0.74	.015	
	Preventing a bed sore	2.9±0.72	2.4±0.74	<.000	
	Preventing a falling	2.9±0.68	2.3±0.71	<.000	
Emotional care	Managing a restraint	2.8±0.69	2.4±0.75	.001	
	Leisure activity assistance	Conversational partner	2.3±0.73	2.2±0.65	.106
		Playing a game	2.3±0.68	2.3±0.65	.845
Communication assistance	Communication assistance	2.6±0.66	2.3±0.71	.001	
	Emotional support	2.6±0.68	2.4±0.74	.003	
Housekeeping and daily living assistance	Dietary assistance	Supporting buying a food stuff	2.4±0.57	2.1±0.58	.025
		Preparing diet	2.3±0.65	2.2±0.60	.060
		Washing food and tableware	2.3±0.58	2.2±0.69	.070
	Environment management	Bunk management	2.2±0.60	2.0±0.55	.016
		Washing clothes	2.4±0.73	2.1±0.62	<.000
		Cleaning	2.5±0.77	2.1±0.62	<.000
		Managing supplies	2.2±0.61	2.0±0.54	.007
	Daily work assistance	Fostering safe environment	2.2±0.58	2.1±0.60	.066
		Out accompanying(hospital)	2.8±0.72	2.7±0.78	.538
		Acting for client's daily operation	2.6±0.64	2.1±0.66	<.000
Special care assistance	Disease management assistance	Keep a client under observation	2.4±0.61	2.1±0.53	<.000
		Disinfecting a simple wound	2.2±0.55	2.0±0.52	.002
		Expectorating assistance	2.7±0.61	2.3±0.67	.004
		Applying topical medications	2.1±0.56	2.0±0.52	.207
		Checking blood sugar	2.1±0.59	2.2±0.79	.492

Table 5. Differences of Difficulty in Task Elements between LTC and CH (cont.)

Duty	Task	Task element	LTC [†] M±SD	CH [‡] M±SD	p
	Emergency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speedy reporting	Coping with choking	3.1±0.57	2.7±0.73	<.000
		Coping with burn	3.1±0.60	2.7±0.72	.001
		Coping with seizure	3.2±0.55	2.7±0.67	<.000
		Coping with bleeding	3.1±0.60	2.6±0.66	<.000
		Coping with falling and fracture	3.1±0.59	2.7±0.67	<.000
		Coping with hypoglycemia	2.9±0.66	2.4±0.79	.004
		Coping with dying	3.3±0.58	3.0±0.77	.002
		Coping with other emergency	3.2±0.59	2.7±0.76	<.000
	Dementia patient care	Observing any change of dementia patient	2.9±0.68	2.5±0.70	<.000
		Coping on the behavior problem of dementia patient	3.1±0.67	2.7±0.72	<.000
		Cognitive activity assistance	3.0±0.70	2.7±0.74	.002
Documenting and reporting	Documenting	Creating a journal on the job	2.4±0.61	2.1±0.56	<.000
		Documenting clients management report	2.4±0.62	2.2±0.57	.002
	Reporting	Reporting transition	2.3±0.54	2.0±0.59	.004
		Reporting to manager	2.3±0.55	2.0±0.58	<.000
Self-development	Promoting competency	Work-related training participation	2.4±0.62	2.2±0.63	.014
		Collecting current information	2.6±0.60	2.3±0.60	<.000
		Bond formation with other workers	2.5±0.68	2.1±0.63	<.000
	Self-management	Managing stress	2.8±0.64	2.5±0.72	<.000
		Managing health and safety	2.8±0.74	2.4±0.69	<.000

† LTC, Long term care facilities; ‡ CH, Client's home

도는 '식생활 지원하기' 임무 중 '식자재 구입 지원하기'와 '일상업무 지원하기' 임무 중 '외출동행하기', '일상업무 대행하기'의 경우 재가시설이 더 많았고, 그 이외의 다른 일은 요양시설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 서비스와 타인으로부터 식사도움, 세면, 목욕,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Yoo, 2009). 다시 말해서 재가급여는 일상생활 유지에, 시설급여는 질병 관리에 더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 종류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시설에서의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주로 시설에 입소하므로 안전관리와 체위변경, 욕창 처치 등 전문직 행위와 상대적으로 많았던 Park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이상의 직무빈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 일의 난이도는 '배설 돕기', '섭취 돕기', '여가활동 돕기', '질병관리 돕기'에서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일은 요양시설에서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에 비해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주 수발자가 원하는 도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치매에 대한 지식정보라는 연구결과(Kim, Kim, & Lim, 2002)와 같이 치매 대상자에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 여성에 관한 Park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시설에서의 돌봄 행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목욕시키기, 대소변 처리, 환자의 안전관리, 치료동행(환자 이동), 체위변경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일의 빈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배설 돕기', '섭취 돕기', '여가활동 돕기', '질병관리 돕기' 등은 시설 유형,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업무로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으로만 위의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각 유형별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 등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로 하루 24시간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 개별적인 돌봄의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시설 평가, 그로 인한 행정 업무 가중, 그리고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등에 의해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D. J., 2010; Kim et al., 2009; Lim, 2011; Park).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가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직무 만족도는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더욱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42%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24%가 업무와 관련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 중 71%가 무리한 힘·동작이라는(Institute of Medical & Welfare Resources, 2010) 보고가 뒷받침하듯이 허약 노인을 돌보는 업무 특성 상 업무 빈도가 높은 체위변경이나 이동보조 등 신체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나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업무에 대해 난이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선열의 유지나 상해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내용이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는 한계 즉, 매일의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해진다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정하는 업무보다는 보조 업

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Han, 2011) 역시 이들의 업무가 어렵다고 인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특성과 본 연구 결과를 관련지어 본다면, 우선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이 50대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육체적 돌봄이 많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무 환경, 요양보호사 자격 및 자질, 교육 등 제반 사항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시설 유형별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요양시설 근무자가 어렵다고 한 '개인위생 돕기',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운동 및 활동 돕기', '안전관리하기', '의사소통 돕기', '식생활 지원하기', '환경 관리하기', '일상업무 지원하기', '응급상황 예방, 조기발견, 신속보고하기', '치매대상자 돕기', '기록하기', '보고하기',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자기관리하기'의 표준교재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이에 관한 실기 및 실습을 강화하고, 더불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과 재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직무의 빈도와 난이도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Byun, S. Y., Choi, D. S., & Suk, J. E. (2010).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career development of home helper*.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ho, C. M. (2008). Task analysis of geriatric care helpers based on DACUM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5(1), 66-75.
- Han, J. W. (2011). A research on the rise of

- care worker's professionalism. *Journal of Women's Studies*, 21(2), 197-235.
- Kim, H. J. (2009). *Impacts of home care service on the servic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Kim, N. C., Kim, J. H., & Lim, Y. M. (2002). A Study on community-dwelling elders with dementia, their primary caregiver, and living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1), 13-29.
- Kim, Y., & Yoon, H.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on of caregivers based on a socio-ecological model.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1), 61-72.
- Kim, Y. T., Kim, H. W., & Yeom, Y. B. (2009). A study on the critical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of care giver between long term and home base care service cente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6, 53-76.
- Lee, C. J. (2010).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leave among staff in long-term care agencies. *Social Science Studies*, 34(2), 93-113.
- Lee, S. H.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elpers for the elderly: the case of gyeongsangnam-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 Lim, J. D.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geriatric care helper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1(1), 225-235.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2009 Yearbook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statistics*. Seoul: Author.
- Park, D. J. (2010). *A Study on Caregivers' Practical Experience of In-Home Services and Institutional Services and Institutional Services of Long-Term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 Park, Y. H. (2010). *Influences of environmental factors of care providers in medical and welfare servi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n their job stress-Based on variables self efficacy and satisfaction level with 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Park, Y. R. (2007). Care workers' needs and the long 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3(1), 27-56.
- Ryu, H. S. (2005). Policy alternatives on developing a home health care system for 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1), 148-160.
- Shin, S. J., Choi, K., Jung, S., Kim, S., Park, H., & Seok, J. E. (2012). A job analysis of care helper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9, 2-9.
- Statistics Korea(2011). *Statistics of the aged for 201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Um, K. W. (2011).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are worker.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10(2), 87-112.
- Yoo, H. K. (2009). *A research about user satisfaction due to the initi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Focused on welfare centers for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Yoon, K. H., Cho, E. H., & Lee, T. H.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care of nursing assista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Seoul.

U. S. Department of Labor Statistics (2009).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8-2009 Edition. Retrieved November 15, 2008, from <http://www.bls.gov>.

Institute of Medical & Welfare Resources (2010). *Survey on the musculoskeletal disease of care helpers*. Seoul: Institute of Medical & Welfare Resources.

Comparison of Frequency and Difficulty of Care Helper Job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and Client Homes

Hwang, Eun Hee(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Jung, Duk Yoo(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Kim, Mi Jung(Lecturer, Division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Kim, Kon Hee(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hin, Su Jin(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 Chun H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differences of duties, tasks, and task elements of care helpers between long term care (LTC) facilities and client's home (CH), and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policies.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18 care helpers. Duties, tasks, and task elements were measured using the framework proposed by Shin et al. (2012). Data were analyzed by t-test using PASW 18.0. **Results:** All of the job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TC and CH. Dietary assistance and Daily work assistance were more frequently in CH, and the frequency of other tasks was higher in LTC than CH. Tasks with higher-reported difficulty by those who worked in LTC were as follows: personal hygiene, position change and movement, exercise and activity assistance, safety care, communication assistance, dietary assistance, environment management, daily work assistance, emergency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speedy reporting, and dementia patient care.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raining for care helpers of each facility type will be differentiated. Tasks and task elements reported by care helpers were modified and added to the standard textbook.

Key words : Long-term care, Care, Job analysis